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7年(檀紀 4320年) 5月 31日 第123號 [1]

발행인 鄭在益 哲炫在旭
편집인 申崔在
인쇄인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나가자 우리東大 우리의 자랑



第16次定期總會盛了

本会 第16次 定期總會가 지난 4月 25日 오후 3時
鄭在哲本회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모교간부, 본회
임원등 2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母校 東國館에
서 있었다.

이날 總會에서는 全國지부에 대한 회기전달 및 49
次 理事會 의결사항이 추인되었는데 第14代 會長으
로는 鄭在哲회장을 추대했으며 會長團에는 13代 會
長團에 安재란 東女會長을 추가임명했다.

추대후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며『앞으로 해야 될
큰일이 同窓會館建立인만큼 기금모금을 위해 앞장
서겠다』며 전 동문들의 회관건립협조를 당부했다.
(사진下는 母校81周年 開校記念式장면)

시카고로 가십니까? 논스톱으로 다녀오십시오.

40
YEARS
ACROSS
THE
PACIFIC



서울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시카고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노스웨스트의 시카고 논스톱을 권해 드립니다. 매주 3회(월, 목, 토) 운항되는 시카고 논스톱편에는 도착후 산뜻한 기분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보나 넓직한 좌석, 최고급 와인 및 정갈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이외의 도시로 가실 분은 에어링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미국내 200여 도시로 모셔드리는 노스웨스트 미국내 연결편을 이용하십시오. 미국으로의 빠르고 편안한 여행은 단연 노스웨스트입니다.



 노스웨스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울 734-7800 ●설항공 735-8500 ●조선호텔 777-9786
●롯데호텔 778-8240/1 ●힐튼호텔 752-2394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

鄭在哲 회장 만장일치 재추대

4月25日 定總 예결산승인·회칙개정등 추인

- ◎ 本會 제16차 定期總會에서는 제14대 총동창회장 ◎
- ◎ 鄭在哲 회장을 재추대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
- ◎ 3시 母校 東國館 5층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
- ◎ 서는 제49理事會(3月 21일)의 결의사항인 鄭在哲 ◎
- ◎ 동문의 會長 재추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 ◎
- ◎ 편 副會長 17명, 監事 3명의 선임안도 합성한 전 ◎
- ◎ 회원의 만장일치 의결하므로 本會와 母校發展을 ◎
- ◎ 위한 제14대 임원진이 출범하였다.

2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申忠炫本會事務局長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鄭在哲 회장을 비롯한 전국 15개지부에 대한 회기전달 李吉錦감사의 감사보고, 경과보고,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심의 순서에는 지난 3월 21일 본회사무국 특설회의장에서 있었던 제49차 정기이사회 결의사항인 鄭在哲 14代會長추대안을 심정, 참석한 동문의 만장일치로 鄭在哲 회장을 14대회장으로 추대했으며 회칙개정안준에는 49차 이사회 상정안중 제138 「고문·명예회장과 지도위원」 항을 表鉢大(62哲學) 동문의 貝의로 「母校와 동문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고문운영명을 회장단 회의에서 그리고 명예회장 및 지도위원 약간명을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할수있다」라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였다. 회의안은 통과시켰다.

또한 부회장단은 鄭在哲 회장의 호명에 참석동문들의 박수로 추대했는데 13회 부회장단 16명에 새로이 안재란(64國文·東女文 회장)동문을 추가 총 17명으로 늘었으며 감사는 許文秀(57經濟)동문이 2명의 13회 감사를 유임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날 鄭在哲은 인사말을 통해 「나시 會長직을 맡겨주어고맙다」며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열심히 하겠다고 취임소감을 피력하며 「제14회 회장을으로 해야될 중요한 일의 하나가 동창회관련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2억여원이 모금된 상태입니다만 더욱 박차를 가해 회관건립에 필요한 기금모금에

사를 통해 「장학사업등으로 모교발전에 기여한 동문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양적인 광장에서 이제는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는 때이니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며 모교와 동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있은 격려사에서 金殷澤(52政治) 고문은 「사무국의 이전, 회관건립의 추진 등 동국발전을 위해 힘쓰는 鄭在哲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시간 30분의 총회가 끝난 후

인 6시부터는 동국관(로비) 연

회장에서 참석한 동문 2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연회를 가

지기도 했다.

또한 李智冠(60政治) 회장을 대신

해 참석한 閔丙天 부총장을 축



▲이날 鄭在哲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건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全國…골프대회】盛了
5月25日 한성컨트리에서

母校 경영대학원 동창회주최 제16회 체육부장관배정찰 전국 특수대학원 대학, 대학원 동창회 비활성 천선골프대회가 母校팀을 비롯해 成大, 高大, 延大 등 10개 대학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5일 한성컨트리클럽에서 있었다.

각 대학동창회진의 유비강희

및 동문들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실시된 동 골프대회는 지난 76년 6월 成大 成績회 주최로 실시된 이래 이번으로 16회를 맞이하는 대학동창간의 체육대회 중 최고의 역사를 지닌 것이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母校 経営大學院同窓會팀과 成大팀이 공동으로 차지했는데 후원은 總同窓會가 맡았다.

이번 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母校동창회 同窓會 임원으로는 吳德永 経営大學院院長, 韓昌原(57經濟)前 経営大學院院長, 曹奎(77經院·本會副會長) 経営大學院同窓會長, 趙龍龍 連社 회장을 비롯한 各期副會長, 李正世(63政治·本會常務理事) 동문 盛益本會事務局長 등 다수 가 참석하였다.

加之부 定期總會 신임회장에 韓廷大동문

本會 카나다지부 동창회 第10次 定期總會가 지난 3월 27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회관에서 있었다. 86년도 사업결산 및 87년도 계획수립, 임원개선 등이 있었던 이날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趙廷大(64國文) ▲부회장=이의일(70政治) ▲총무=李瑛昊(71불교)

한편 회의가 끝난 후에는 회원들의 회비를 거쳐 충동동창회로 카나다 달러 5백불을 우송했다.

“同門카드 電算化작업”

姓 名	한문:	한글:
생년월일		
出身大學	東國大學校	大學科
職場名		年卒業
電 話		職位吳 주소:
郵 便		自宅
址		
현 주 소		
		大學院院系

(교고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碩博士과정 모두 記載할것)
硕主 博士科目: 修了年份:
博士專攻科目: 修了年份
特殊 및 대학원: 修了年份

本會사무국 이전과 함께 컴퓨터를 도입, 동문간의 보다 빠른 정보교환 및 부회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동문찾기 배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본회에서는 이를 위해 금년중에 전회원의 입적사항을 파악, 전신화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에 대한 준비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작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본회 사무국에서는 동문들의 정확한 입적사항이 컴퓨터에 입력될수 있도록 한가로운 협조부탁드립니다.

위 양식을 보낼 주소는 서

울종로구 관통동 192-18상화

빌딩 12층, 동국대학교 홍동창회

영남지역 체육대회 5月17日, 경주캠퍼스 서

제 4회 영남지구 동문체육대회가 지난 5월 17일 母校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閔丙天(74政治) 부교총장(65佛敎·경주직할동창회 회장)동문, 金泰成(66國文·내구지부 회장)동문, 金泰成(66國文·내구지부 회장)동문, 全顯昊(60醫學·포항지부 회장)동문, 中益炫(72경영)總同窓會 사무국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내구지부, 경주직할동창회, 포항동창회, 경주자직동창회, 새학생 및 기타 팀 등 5개팀이 배구, 출더리기, 윷놀이, 어린이잔치(자파마끼리, 풍선트리거기) 등의 종목으로 실시한 이번 동



▲이번 체육대회는 지역동문간의 유대강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스파이크 40족 등 기증 4月30日 야구동문회에서

야구동문회(會長=朴龍根·65經濟)에서는 지난 4월 30일 母校 야구부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선수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품목으로는 나이키스파이크 40족과 조깅화 40족으로 동문회에서는 모교야구부를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알렸다.

마산동우회 야유회 5月10日 성남사서

마산 동우회(회장=鄭英鉉·(株)頌南工業 대표) 87년도 정기 야유회가 지난 10일 근교사찰 성남사에서 있었다.

鄭在哲 회장을 비롯 구청관 출무동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은 경주직할동창회가 차지했다.

영남지역동문회 상호간의 친선

활동 및 우의를 더욱 돋구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체육대회는 부부동반으로

총 3부(개회식 체육대회, 시

상 및 회복대회)로 진행 되었는데 특히 대구지부의 경우, 대

형버스 2대를 대절해 회원

전부로 대회에 참석, 많은 박수

를 반겼다.

각종특별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배구=경주직할동창회

▲줄다리기=경주직할동창회

▲윷놀이=대구지부동창회

동 회원 25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즐거운 한때를 보낸 이번 야유회에서는 암으로 퇴회의 발전방향등이 논의되었다.

성북동문회 정기 모임

6월 청립총회 준비논의

성북동문회(會長=金光錦 69경행· 품종 대표) 정기모임이 5월 7일 오후 7시 시내 보문동 소재 同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회장을 비롯해 李慶純(63法) 金榮一(63外) 고문등 일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보네이션 대회에 대비해 집중논의 하였으며 대회 승리회복제 협조체제를 논의했다.

東友漫評

鄭雲耕



「會館建立으로의 진일보」

思索의廣場

——主人意識



李 峴 鎭 道文

최근, 모(某) 재벌기업 회장의 투신자살 사건이 세상을 갑자기 놀라게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세인(世人)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 기업의 회장과 전문경영인 사장들, 회사 최고 경영진의 온갖 비리(非理)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회사가 빛어미와 경영 일화 속에서 험악하고 있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며 갖가지 부정한 수법으로 거액의 회장을 해외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 불화를 빚으면서 자신들 사이에 회장의 친지(?) 주인임을 강조했었다고 있다. 즉 회장은 「내가 침입하여 키워온 사업으로 내가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했고, 전문경영인 사장은 「회장을 어디까지나 회사의 소유주에 불과한 회사의 진짜 주인은 사원들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각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실제로는 모두 진짜 주인이 아녔다. 자신들이 아울러 친지 주인이라면서 주인임을 자처한 회사를 구할 생각은 않고 자신들의 사복(私腹)을 채우기 위해만 고집했던 말인가. 그들은 소유주나 주인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되었을 지연장 진짜 주인이나 친정한 주인의식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흔히나 문화자 전통과 함께 뛰어난 민족이다. 그들은 우리의 선인(先人)들이 이룩해온 문화적 업적과

경제성장의 기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전쟁한 주인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 저지암이 존재한다.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물질만족주의와 한탕주의식 사고방식, 험된 명령식, 모방, 통신 등을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은 바 일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책임과 경제성장의 기적을 쌓아가고 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결코 주인의식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수 없으며 직장이나 회사에서는 어떠한 위험의 진정한 주인이될 수 없다.

정치도의를 저버린 정치인, 기업윤리를 외면하는 기업인, 앙심을 품어버린 종교인, 사랑감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직장인, 본질을 막강한 학생 등은, 비록 어떤 것인가의 외형적인 주인이라고 해도 불평하고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

진정한 주인의한 전정한 주인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의식은 자신의 맘은 바 일을 자기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고, 책임의식과 회생정신이 있으며, 올바른 양심을 떠나 행동하는 것이다.

무릇 사회풍토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좋은 향토 속에서만 좋은 열매가 어진다.

모든 사람들의 저지암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양심에 따라 자신의 맘은 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진정한 주인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풍토가 이 맘에 따라 내릴 때 온갖 주의할 것이다.

※ (62·國文·이철호한의원 원장·文人협회 수석부회장)

책임의식과 회생정신으로 양심에 따라야...

내가 맞은 6·25

6·25를 생각하며

37년전 내가 서울 성북구동 일동에 살고있을 때였다. 6·25 사변이 발발, 북한의 인민군이 기습공격 해왔는데, 당시 한국 대리미군은 한국군이 북한 인민군을 격퇴하였으니 안심하고 방송하는가 하면 주위에 서는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길래 서서히 불안에 젖어 있던uron 다음날 낮선 인민군과 편강(偏強)을 끌밀듯 넘어오는 것을 미아디에서 확인하고는 눈앞에 침침해졌다.

북한 인민군이 말하는 소위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한국동란)이 시작된 것으로 남쪽에 서파괴와 인민살상의 비극이

전갈을 받는 순간 나는 하도 놀라고 겁이나서 화장터 빛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삼봉을 벗어 땅에 묻고, 집에서 보내온 헌옷으로 같이 입고 피신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밤에는 산속에서 급성스런 모기에 시달리고 낮에는 길가에 서 설익은 간냉이를 사먹고 허기를 면하면서 정처없이 피신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길가에서 벼룩을 보게되었는데 벼내용이 「大學生동무 어여분은 ۲월 ۱۵일시까지 등교, 학업에 들이기면 인민의용군 병역을 면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수면부족과 영양부족에 남루

천 윤기 동문
<캐나다동문회 고문>

"그때 의용군에 끌려간 學友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 웃자림의 나는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기쁨으로 등교를 했다.

당시 학교에는 모두 비슷한 사정으로 등교한 학생이 2백 여명 있었는데, 학교에는 교직원 하나 보이지 않고 학생부원장이라는 자가 모인 학생들을 모두 강당으로 집합시키더니 어색하고 어설픈 인민군기를 몇 번 연습시키고『친애하는 학생동무 여러분!』우리의 영명한

인민군이 남반부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고, 우리 학생도 이 거룩한 인민해방전선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학생의 융으로『지원할 동무는 손을 드시오』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호응하는 몇몇 앞잡이

만『lops』하고 손을 들었을 뿐 순드는 학생이 없자 삼시 낭황한 표정을 짓더니『그려면 언니간 동무는 손을 들여리니』고 외치니 학생들도 손을 들면 죽음을 자초한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를 주불하고 있을 때를 이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이 그 위험한 이란은『그려면 여기 동무들은 모두 학생의 용군에 지원한 것이니 이제부터 교정에 나가서 페데를 짜고 일대수술을 한다』라고 하느것이 아닌가?

그 순간, 아차 속았구나! 함정에 걸려 이제는 영락없이 끌려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모두를 새파랗게 질려서 교정을 나오며 삼십오의 짜증을 논하기 시작했다. 나도 같은반 친구하고 의견을 했다. 의견결과 동반자나고 대내에서 동의하고는 우리 멤버은 위원장에게 기사에서 번소에 기자다고 하니 위원장이란자는 학생위원 한사람을 달려보내서 번소 문 앞에서 감시를 했다.

우리는 앞문으로 들어가서 뒤 침둔을 누우고 빠져나온 결사적으로 뛰기시작 했다. 감시하던 자는 소리를 지르고 둘을 던지며 죽어오고 우리는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면서 신은 읍 어머리고, 듯은 깃이고 무릎과 얼굴은 긁어서 피가 나면서도 뛰고 또 뛰면서 모두 흘어져 달아났다.

달아나면서 생긴 상처며 차림새가 형편이 없는지라 길에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의심받을까 두려워 낮에는 산에 숨어 있다가 밤에 삼선동으로 피신하였는데 친척집에 들어선 후 둘한사람하고 몇 칸에 숨어 집에 빠졌는데, 그때 내가 잠자리에 어려웠던 지경까지 삶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때 의용군에 끌려간 학생들이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고, 6·25사변 때 나보다 더 어려운 고비를 겪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때면 6·25만 다가오면 나에게는 그때 그악몽같은 위기일발의 사건이 가슴속에서 피어나온다.

회費...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2월 同窓會관 건립의 초석이 될 사무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同窓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同門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 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등 東國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회費 납부에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會 費 内 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 대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 事務 局으로 문의 바랍니다.

TEL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시고, 충남처럼 즐기시십시오.

이제, 가정이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편리하고 풍성하게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장을 찾는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멋지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세미나 준비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언제나도 전화하여 주시면 매우 예약주어 실속과 준비에 드리겠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리주십시오.

* 승강 서비스가 연결되는 경우 일정한 시설을 갖춘 프라자호텔의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문의: 전화 771-22 교환 745-7249

東國人은
東國人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료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명문)

776 - 7895 ~ 7

752 - 4396 ~ 7

상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 후문 맞은편)

副會長

愛校心 강한 6代째 副會長
文泰植 수서부회장

49年 專門部 史
科卒。 지난 76
년이래 6대째부
회장을 맡고있는
동창회의 숨은공
로자。 71년 축구
후원회 발기멤버
이며 「70周年
학금이사회」부이사장, 아주파이프 공
업(주)침립대표이사, 양산알콘크리트
(주)침립대표이사들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産業(株)會長, 아주파이프공업
(주)회장。

주목받는 전문經營人
禹鍾植 부회장

52年 經濟科卒。
그동안 교교및 본
회발전에 공헌이
크다는 평을 받고
있는 동문。 和昌
섬유공업(株)상무
이사, 韓一 섬유공
업(株)대표이사들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太平洋開發
(株)대표이사, 아랍제국현장 상공회의
소 주로받는 전문경영인。

支部 활성화의 견인자
朴辰熙 부회장

52年 經濟科卒。
지난 81년 本會
상무이사로 참여
한후 조직감당부
회장을 맡으면서
本會發展 및 모교발
전에 공헌, 대구지
부회장, 고문등으
로 단위조직 활성화에 신도지역 활동을
담당。 한국석유협회 부회장, 경북도政路
問委員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鐵油(株)대표, 대한리비롯불협회 부회
장。

78年부터 副會長, 實踐家
金聖涉 부회장

53년 政治科學
卒。 지난 78년부
터 本會副會長으
로 활동해오며 本
會發展을 위해
맡다 실천이 앞
서는 愛 東國主
義 동문。 총우회
원회 발기멤버, 東友會社 이사들을
맡고 있으며 시일기업(株)부사장, 大韓
유리공업(株)이사들을 역임。 현재 대
영섬유(株) 및 大韓毛纺(株)會長。

활동영역넓은 東友會會長
安善蘭 부회장

54年 國文學科卒。
東友會 會長으로
제16차 총회에서
14대 회장에 피선된
동문。 모교 행정대
학원에서 교육학
전공, 美 풀든스
테이트大 교육학부사회원 등을 취득한
安동분은 복지학원설립, 理事長, 영식장
학회 설립이사장 등 교육계를 비롯하
여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자, 차문부
원 등 지역활동도 활발한 동문。

女외교관 1호 女性界지도자
洪淑子 부회장

55年 政治科卒。
東友會 洋外회장
으로 11대부터
13대까지 본
회 회장단의 홍
일점으로 활약했
으며 여성외교관
1호로 뉴욕총영
사관부영사, 신사관
부랑수, 아세아녀

本會 제14대 會長團 프로필

- ◎ 本會 第16次 定期總會에서 鄭在哲회장은 앞으로 2年間 總同窓 ◎
- ◎ 會 제반 업무를 이끌어갈 會長團은 각期別 및 社會의 역량별로 안 ◎
- ◎ 배하여 17명의 副會長 선임을 끝마쳤다. 다음은母校 1백년을 ◎
- ◎ 항한 기본사업추진 및 總同窓會 회관건립등 새 轉機를 맞아 本 ◎
- ◎ 會를 이끌어 갈 제14대 회장단 프로필。 ◎

鄭在哲 회장

80年代 이끌어
會館건립 역점



49年 軍械部 文學部
및 52年 政治科卒。 論
界, 界界 금융계등 다방면에서 활
약 해왔으며 5·18개각전까지 政務長
官의 중책을 맡으며 本會를 이끌
어간 東國發展의 견인자로 현재는
민정당 강원도지부 위원장의 중책
을 맡고있다.

62년 保社部 公보관으로 官界에 봄

서단체현의회 부회장, 한국여성단체현
의회 회장, 세계연설단체 협의회 회
장을 맡고있는 誉문。

本會發展에 적극적, 法曹人
金東正 부회장

54년 法學科卒。
지난 74년부터 副
會長으로 本會發
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는 있는
한국靑圃 유일한
法曹人。

서울高法院判事, 서울시민지방법원부판장
사, 母校 財團監事, 대한변호사협회부
회장(現)등을 역임한 변호사。

치밀한 性格의 기업인
柳周馨 부회장

57년 農化과卒。
大韓農產(株)
전무, 삼환 산업
(株) 전무, 忠南
紡績이사, 同상무
이사, 大成毛纺工
業(株) 대표이사,
農業科 동창회회
학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善田전문대학
교장, 善田전문대학교
장, 청와대문대학
교장, 청와대사장수석
부서 관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86년부터
총무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활약 중。

正統 官理 출신 長官
鄭寬溶 부회장

58年 法學과卒。
73년 총무처 총
무국장 동 인사
국장, 동종암공무
원교육원부원장,
국보위사무처장,
중앙서기관리위워
회사무처장, 청와대사장수석부서
비서관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86년부터
총무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활약 중。

宗團의 일꾼, 學生會長 출신
宣晋圭 상임부회장

59년 佛敎科卒。
母校 대학원을 거
쳐 경남대에서 교
편을 맡았으며 재
학시 總學生會長,
本會 第7代 事
務局長, 韓國청년
협의회 이사, 韓
佛敎青年會 한국대표, 大韓佛敎青年
會 會長, 事務局長 등을 역임하였으며
연세 烽火山 불교청년수원 원장 및 대

답은 이래 전매청 기
획관리 및 차장,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韓國
產業銀行 副總裁, 신용
보증기금 初代理事長,

韓一銀行 銀行長을 역임했
고, 민정당 예결특위원
및 차부위원장, 財政
정·금융분야 20여년이
간 몇십여년을

신본단으로 財界에

81년 本會 第11代 會
長에 추대된 후 동문간의 유대강회를
비롯해 동창회관련주진과 장학회
등을 통한 보교지원등으로 東國發展
의 초석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

폭넓은 활동과 함께 원만한 대
인관계를 갖고있으며 소탈한 성격에
업무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이 衆評。

한불교재계 총 상임포교사로 母校에 출
강중이다.

重量感 있는 3選議員

金東英 부회장

60년 政治科卒。
3選國회의원(산
청·합동·거창) 으로
國會東友會
會長, 无선대·고
대에서 강의를 했
고 新民黨 사무
차장, 同慶양당조
지부장, 総務부
지부장으로 활동한
체구에서 우러나는
실통력강한 언변으로
활발한 政治活動을 전개하는 重量感 있는
政治人으로 현재 統一民主黨 副總裁。

전국신도회 회장 布敎에 앞장
朴完一 부회장

61년 佛敎科卒。
현재 대한불교조
계종 전국신도회
會長, 68년 불교
교양지 月刊『法
輪』을 창간, 계
속 행해 오는
등 교리와 佛心

의 확대를 위해 佛敎運動 및 신도회

발전에 앞장서 있으며, 방송심의위원
회원, 사회정화위원회 지문위원, 大
한민족회 이사장, 韓
교民連合理化
에 출강하는 등 사회각분야에서 맹활
약하는 동문。

韓國經濟界的 거물
鄭相永 부회장

61年 法學科卒,
株式會社 金剛代表
理事, 現代建設
株式會社 常務理
事, 現代自動車工
業株式會社 副社
長 本會 理事회
常務理事 등을 역
임한 韓國經濟界的
주목받는 企業人
으로 現在 株式會社
金剛 및 高麗化
學株式會社 會長으로 있는 同門。

후배에 관심 큰 企業 경영인
朴峻亨 부회장

63년 經濟科卒。
명학직률공업(株)
전무이사, 대표이
사, 신라금속(株)
대표이사 등을 역
임했으며, 지난 84
년 반공연맹이사
서 출신으로 本會

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했으며 진
품상호신봉금고도 설립。

東友獎學會를 설립, 母校의 留學
연수도 깊은 관심을 쏟고있고 있으
며 현재 新羅交易(株)代表理事。

모교學生處長, 事務
徐閔吉 부회장

68年 佛敎學科
卒, 대학원까지 출
골 고교에서 마
치고 84년부터 母
校 佛敎學科부교
수로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佛敎文化 研究
院 간사, 韓國佛敎學會理事, 道場역임
하고있는 徐閔吉는 85년부터 母校
학생처장을 맡고있다.<단연직>

將星출신, 行大院 동창회장

尹鎰均 부회장

69년 行政大學
院卒, 空軍准將으
로 應援한 후, 서
울신문사 專務理
事, 情報部長직부
대행등을 역임.
 현재 行政大學
院 同窗會會長으
로 지난 78년 母校에서 政治學博士를
취득한 學究派。 國제公私 관리 공단이사
장을 거쳐 현재 한부개발(주) 대표이사.
<단연직>

热誠, 經營大學院 동창회장

曹奎 부회장

77년 関稅大學
院卒, 76년 제5
대 경영대학원총
학생회장을 놓았
으며, 전국특수대
학원 總學生會聯
會會長 역임.
 현재 同窗會
副會長, 수신부회장
· 고문등을 거쳐 同窗會으로 本會 및
母校发展에도 기여하는 등으로, 현재
외교발달· 외교안전 代表<단연직>

監事

許文秀감사…東國의 금융인

57년 經濟科卒. 현재
한국산업은행 상무이
사로 활약 중. 오랫동
안 同行에 근무해오
며 서교동, 신길동,
남대문지점장을 거
쳐 금융계 일선에
서 탁월한 기량을 발
휘하는 東國의 금융인.

李詰鎬감사…文人 한의사

62년 國文系卒. 수
필가· 国文가로 문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漢醫學 碩士.
한국문화협회사, 수필
분회회장, 의학방송연
제인회 회장, 頤弓자
문화의 會, 曹溪· 龍虎
文学会, 文學· 藝術· 藝術
예술분과 간사, 상임
위원회 위원 및 강남구협의회
부회장, 韓國청년회
의원회 회장, 本會
원회 및 韓國 청년회
북서울 J C 회장 등을 역임했
고 현재 「李詰鎬한의원」 원장.

南基一감사…會發展 공로자

72년 經營學科卒.
現在 三然油脂(株)常
務理事, 在學中에 總
學生會會長, 代議員議
長을 지었으며 (株)韓
一銀行 勞動組委員長, 三
然油脂 營業理事 등을
역임했다. 本會 11代
事務局長.



唐津
東友會

앞서
가는

79年 결성 會員 24名의 초미니支會

“회원간의 유대감 全國으뜸 자부”

한 가게주인의 말.

『지역에 종사하는 특별히 공고해서 모이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자주 모이는 편이지요. 우리 東友會는 현재 두달에 한번의定期모임과, 가을에 갖는 體育大會,年末에 갖는 동문의 밤 등을 들수있죠』

唐津에서 모임을 갖는 대학 동창회가 없는 만큼(얼마전 가지는 꿈주사대를 비롯, 몇몇 지역사회들이 있었던) 동진지회의 모임은 지역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특히 연말에 개최하는 동문의 밤 행사는 부부동반의 학력한(?) 친지로 행사전후로 음악의 향토로 등장, 그때가 되면 은근히 東大출신임을 자랑하고 싶어진다고.

저멀리 보이는 서해의 갯벌에서는 소금이 있고 바위에 굽불은 모양으로 손온손도 모인 담신고들은 木堂의 고장중의 고향이던 산귀리를 절로 물겨고 있었다.

唐津읍내의 한 다방에서 「어서 오시요」하는 한 同門의 느린 반길에記者가 청정도에 왔음을 짚어 드릴 수 있었다.

『이런 촌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村에 있으나보니 삼모임보다 인원도 적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해서 總同窓會에 많은 노동도 되지 않겠는데…』 라며 앞서가는 東友會원에 소개하기가 부끄럽다고 겸손해 하는 唐津東友會 南常祐(61歲·당진中 연구주임)동문은 서울에서 통문은 항상 반갑다며 활짝 웃는다.

현재 唐津東友會를 구성하는 동문수는 24명의 초미니 支會. 總同窓會支部 중 일부 해외지부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이 가장 작은 지회이지만 가족과 같은 그리고 알뜰하게 회장을 운영하는 친한들 듣고있는 支會이기도.

唐津市内 唐津中 미호정 등 교육계에서 많은 회원이 종사하는 회는 지역유지도 金鐘範(66·제일예식장 대표)부회장을 비롯 송일원(宋日元 68·農學)조합장, 金峰근(金峰根) 사마율(李相郁) 회장, 조남수(조남수)동문 등 지역 경찰간부, 관공서의 종업원과 담당자를 비롯하여 당진내의 權力(?)은 東大출신이 많고 있다는 것이 당진읍내

많은 편이지요 남자들만의 모임이더 보니 시설이 아기고 비롯해 뜨끈한 이야기(?)하기도 편해 서로 형제 이상의 사이를 갖는다고 할까요』

李 출무의 말처럼 당진동우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자체

라고 할수있음을 당진동우회를

들은 동문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총동창회에서 모임을 주선해주세요. 그래서 당진으로 한 번

많은 편이지요 남자들만의 모임이더 보니 시설이 아기고 비롯해 뜨끈한 이야기(?)하기도 편해 서로 형제 이상의 사이를 갖는다고 할까요』

李 출무의 말처럼 당진동우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자체라고 할수있음을 당진동우회를

들은 동문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총동창회에서 모임을 주선해주세요. 그래서 당진으로 한 번

많은 편이지요. 데자바 도모아 전시를 일월 준비는 항상 되어있다』 며 서운에 올라온다면 문제를 꼭 거론해달라고 금전회비 회장은 동문들의 당진방문을 적극 권유하기도.

『아직까지는 자체 경비에 급급하다 보니 동창회관건립등 금전회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혼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암울하게 살피하여 우배를 위한 상화사업을 할 예

정이며 지금 그것을 준비중이다』고 南 회장은 밝히며 앞으로의 唐津東友會을 주목해 달라고 한다.

아울러 母校의 發展論에는 교세를 펼치는 것에 대한 진중 투자가 있어야 되며 특히 야구부가 대학의 정상에 있다보니 저작을 한데 부모의 母校를 자랑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동문점기모임에 참석한 동문은 입을 모으며 앞으로 꾸준히 육성, 母校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라고 밝힌다.

서해의 빛에 새벽안개를 뒤로 하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은 记者는 唐津을 떠나기가 못내 아쉬워졌다.

회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 …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요긴

(단위=만원) ▲운우우(63생분)=〃 ▲최안진(81경문)=〃 ▲신현식(69경문)=〃

◇회장권 분담금 ▲김정기(48분화)=〃 ▲전병덕(60법학)=〃 ▲이정인(79행원)=〃

▲朴成亨(63경치)=50 ▲목진하(51경치)=〃 ▲최웅환(65경원)=〃 ▲이학규(57경제)=〃

▲安廣蘭(54국문)=〃 ▲이 고(49문화)=〃 ▲여군식(78동학)=〃 ▲윤대철(58국문)=2

◇常務理事會費 ▲이언자(63불교)=〃 ▲이순영(71행원)=〃 ▲정연파(84행원)=1

▲신국주(48혜전)=20 ▲김상택(65경계)=〃 ▲박재순(54법학)=2 ▲문영일(58경치)=〃

▲정달영(58경계)=〃 ▲김규진(67사회)=〃 ▲김영복(61법학)=1 ▲김우열(81행원)=〃

▲양정오(61현원)=〃 ▲박대혁(63생물)=〃 ▲구자영(71화학)=〃 ▲박우화(68경문)=〃

▲장형식(60경치)=〃 ▲이원순(77경원)=〃 ▲신현숙(85대원)=〃

▲김제국(61경체)=〃 ▲정용달(63경제)=〃 ▲조남일(72경영)=〃 ▲김월호(80행원)=〃

▲박현성(75행원)=〃 ▲송 용(64경계)=〃 ▲이학기(83행원)=2 ▲황의길(81경원)=〃

▲김천수(57경계)=〃 ▲김운기(61경치)=〃 ▲조원주(79행원)=1 ▲정구민(64국문)=〃

▲윤 택(66경계)=〃 ▲김인화(79경원)=〃 ▲이학노(70경학)=〃

▲김경신(58경치)=〃 ▲윤종록(82행원)=12 ▲반준웅(60법학)=〃

▲이광재(45체전)=5 ▲남중우(71경영)=〃 ▲김만식(63경영)=1 ▲김성표(77행원)=2

▲박영삼(79경원)=〃 ▲윤정하(66법학)=〃 ▲김병식(60법학)=〃 ▲류수택(67경영)=1

▲강봉기(68경학)=〃 ▲김기준(61경체)=〃 ▲정석봉(76법학)=〃 ▲김갑성(52경치)=〃

▲안국승(60경체)=〃 ▲김성수(68경학)=〃 ▲장성식(57경치)=〃 ▲조익환(74경치)=〃

▲서술상(79경체)=〃 ▲김영일(63경치)=10 ▲유덕희(86경영)=〃 ▲최성안(57사학)=2

▲송인원(67통계)=〃 ▲박진병(58경체)=5 ▲양암세(69경체)=〃 ▲정강훈(84산공)=1

▲윤부선(63생물)=〃 ▲김동현(84경원)=〃 ▲하연록(71수학)=〃 ▲강희생(72경생)=〃

▲안종오(65영문)=〃 ▲박경숙(59경체)=〃 ▲정해도(57농학)=〃 ▲박천연(80행원)=〃

▲윤부선(63생물)=〃 ▲박종석(64경계)=〃 ▲유인진(71농학)=〃 ▲김철웅(72행원)=〃

▲박봉자(59경체)=〃 ▲이경일(83경원)=1 ▲조현수(64경경)=〃

▲박수천(77경정)=〃 ▲변성제(84산공)=〃 ▲현해종(62경체)=〃 ▲김정탁(65법정)=〃 ▲오주환(61경치)=〃

▲송 진(76공경)=〃 ▲현경(62경체)=〃 ▲이경일(81경원)=〃 ▲조수정(상학)=〃

▲왕포순(55경치)=〃 ▲안봉술(경원24)=〃 ▲이경일(81경원)=〃 ▲단체회비

▲박선영(65불교)=〃 ▲허수필(63경치)=〃 ▲최원복(62농학)=〃 ▲최경기(68경위)=〃

▲박영환(49문화)=〃 ▲최성호(86미술)=〃 ▲정재기(68경위)=〃 ▲한국투자신탁동우회

▲김수부(68경영)=〃 ▲우수성(85경원)=〃 ▲윤대훈(61경치)=〃 ▲회장: 정용달)=20

▲김설태(79행원)=〃 ▲이경우(52국문)=〃 ▲김세정(83행원)=〃 ▲대민자부(회장: 남중우)=100\$

▲유관진(64경치)=〃 ▲김기환(68법학)=〃 ▲차영호(66사학)=〃 ▲이경우(64경위)=2

▲이재원(65경체)=〃 ▲정재원(79경위)=3 ▲김봉희(86경원)=2 ▲광고료

▲정대진(63법학)=〃 ▲임 석(65상학)=1 ▲이장렬(85전산)=1 ▲이해윤(80행원)=〃

▲오진모(61법학)=〃 ▲권공웅(84경원)=〃 ▲동우회보 광고료=99\$



대우자동차(株)

'87 신형 정통 고급 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윌드카 르망시리즈(GSE·GTE·레이시)

TEL 540 - 4740 (직)

(야간) 487 - 7539

판매과장: 崔鉉石 (74연영)

경남 구는 현동 88-7 (고려 B/D 1층)

世進家具工芸店

TEL : 736 - 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順위)

■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明和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 - 4040

대표 이사 홍 평 우 (70 경영)

■ 西独 보석 純正品
연고 節減
에진출력 증가 / 수명 연장
■ 적용 차량
현대·대우 全 차종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e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録·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現代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판매과장: 柳在善
(70 경영 · ROTC 8기)

TEL 274 - 3103 ~ 7
아간 914 - 6584



1 급 자동차 정비사 업체

○ 오성공업사 635-3651 ~ 3
서울 양평포구 문래동 379-77-46 (정비 단지 내)

세계속의 東國향한 용틀임

母校開校 81周年 기념식 盛了

교교 81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11시 李智冠총장과 奧綠園이사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동창회원과 학생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남기어례로 시작, 학교발전을 위한 발원문봉독, 母校연혁보고, 장기근속자표창 및 부상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李총장은 기념사를 통해『현재 교교는 세계의 선진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학문의 세계화, 내외 및 부속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명문중국으로서 자리를 고민하는 학교인 5백여명을 모아 노력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母校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大正大의 大久保順 前校长

에게 명예학박사학위가 수여 되기도 했다.

장기근속 및 근무상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30년 근무상 ▲金鍾遠(경계과교수) ▲李相植(임학과교수)

◇20년 근속상

▲김문일(총무처)

◇10년 근속상

▲吳亭根(불교과교수) ▲吳京煥(미술과교수) ▲徐載根(경행과교수) ▲金濟濟(濟체과교수) ▲金惠英(농생과교수) ▲李尚(통계과교수) ▲洪永植(전산과교수) ▲白壽鉉(전기공학과교수) ▲朴先榮(〃) ▲ 권운범(부속한방병원 관리과장) ▲ 정현수(교육방송국간사) ▲정태한(총무처) ▲이윤웅(실습농장) ▲서영배(총무처) ▲손봉호(총무처)

와 인접학문 및 동서사상의 교류를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취지로, 1천 2백 44의 지면에 총 61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간「大學 소식」간행

母校홍보의 다양성 폐해

母校 공보실에서는 지난 8일 「대학 소식 87년 봄호」를 출간하였다.

民族의 大學－東國大學－이라는 타이틀 아래 母校 홍보 및 우수 학생 유치를 취지로 간행된 이 책에는 未卒 서점 주제의 故郷이여라는 班社詩를 비롯, 李智冠총장의 에세이, E.W.자매의 誓言 메시지, 余國根교수의 논단과 교양면과 洪起三교수의 「東國정신의 實體」 및 母校 전통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종 학교 소식 및 동문수필편에 김형곤동문의 「동국대학교 어때요?－좋습니다!」를 심기도 하여 다양한 인내를 꾀하고 있다.

佛紀2531주년 기념행사활발 佛誕의 진정한 의미 되새겨



의 절정인 5월에는 코끼리상을 앞세운 「연등행렬」이 있어 母校生 8백여명을 비롯 3만 여명의 불자가 참가, 부처의 공덕과 국가의 평안을 비는 행진을 기졌다.

母校교수 時局宣言

「4·13조치」 철회 요구

母校 鄭泰赫(인철교) 黃弼昊(철학교) 金鍾遠(경기과) 金恩(사회과학) 교수등 母校교수 14명이 지난 8일 개혁논의의 재개를 촉구하는 통대학교 교수 자유민주주권 이라는 제하의 시국설명을 발표했다.

또한 불교도연합은 「모든 범들이여! 평등·화합의 긍능체를 향하여!」란 주제 아래 지난 2일에는 입제시 및 「苦의 사슬을 끊고 해방에 향유!」란 연제의 知性스님 강연회를 기념십포지움이 잇달아 열렸다. 이어 4일에는 수계회와 불교가요제, 개시기념연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으며 「불교도주간」

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中(부국) 金鎮澈(정의) ▲金泰俊(일문) ▲林虎一(독문) ▲梁文欽(철학) ▲吳元培(미술) ▲李濟潤(체육) ▲李燃煥(경제) ▲鄭吉用(정의) ▲鄭泰赫(인철) ▲曹恩(사회) ▲車壽連(경영) ▲轉振洙(회계) ▲黃弼昊(철학) <이상 가능나다順>

「萬海詩碑 건립委」 구성

위원장에 吳國根 문과대학장



吳國根 위원장

학교당 국은 지 날달 30 일 학처 장희의에 서 「萬海 詩碑건립 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하 고 위원장에 吳國根(영문과교수) 문과대학장을 임명했다.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건립될 예정이었던 만에 해서는 18세 총학 이 「학생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佛教와 諸科學」 출간

개교기념사업의 일환으로

母校출판부는 81주년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佛教와 諸科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지난 84년부터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추진되어온 것인데 佛教

와 諸科學의 출간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책은 84년부터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추진되어온 것인데 佛教

「學研費」 수혜자 발표

전전한 연구풍토 조성 목표

87학년도 母校 학술연구조성비(대학일반 배정) 수혜자가 선정, 발표되었다.

전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문교당국에서 각 대학에 2천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연구비의 수혜 연구단은 다음과 같다.

▲曹永祿(사학과) ▲朴榮吉(법학과) ▲金在文(경주학과) ▲金淑宋(경주행정과) <이상 4명>

명各 2백만원>

▲이진구(전자공학과) ▲金丙植(화공과) ▲金容旭(농학과) ▲李海桐(농생과) <이상 4명>

各3백만원>

한편 지난 8월 1일 문·사회 자연분야로 나뉘어 지급된 특별학술비는 母校교수증·인문과 학문야에 金英泰(불교과) 교수 자연과학분야에 金圭石(건축공학과) 교수와 받았다.

신새벽을 여는 活火山의 몸짓, 창조와 지혜로 하나되는 東岳이여

는 학생 및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대회를 마련한 「야마인과 함께」는 특히 웃음을 향기로운 행사였다. 오후 2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었던 국립국악단 초청공연은 침체된 우리 고전문화를 부여주고 창조적 대학문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오후 3시 30분 수영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용화대제전」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 흥겹게 진행되었다.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한 이날은 오전 11시 학림관앞에서 가진 기념식을 비롯 오후 3시에는 불상 앞에서 「그때 그시설 그여자」라는 제목의 마당극이 있었는데 각 시대별로 고난받는 여성상을 드러내고 그 구부상당을 제시해보기도 했다. 또 오후 1시부터 백상촌에서 열린 목례

골 장사 씨풀대회도 시종 열띤 응원속에 진행되었고, 동국대에서는 방기회(81·佛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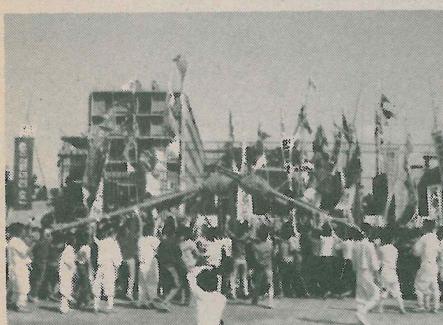
에는 주제아래 열린 축전의 첫행사로는 부역학과와 법학과의 「초청강연회」를 필두로 고전연구회의 「통영오광대」 탈출공연, 종교에 술제 및 강연회에서는 송무·범파·비라풀·찬불가를 발표

등이 선보였고 道·門·斯님의 「부지님께서 이왕에 오신 의의」라는 강연회는 학생들에게 불교의 깊이와 진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사학회에서 주최한 가상인 물재판에는 「맹보·김부식」「탐보」 등의 인물에 대해 사회·정치·문화적 상황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개사공과오묘제」「성주기념지진기념행사」「맹보기념공연」 등도 학생들의 긍정적 호응을 얻었고 행사로는 「성주기념지진기념행사」「맹보기념공연」 등도 학생들의 긍정적 호응을 얻었고 행사를 개최되었다.

마지막날에는 도교재학생이 종례(조경·4교)과 함께 경주지당 이종해(1987) 「정통혼례식」을 가졌다. 당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축복을 받았고 이후 캠퍼스아이등 폐막제 도 치러져 東國인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하늘 세상을 보기 위하여」



개교 81주년 기념 「東國祝典」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교내외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동악! 신새벽을 여는 活火山의 몸짓으로!」란 기치아래 소비활약적이거나 집행부 일방의 독단적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東國인의 주제적인 참가를 유도, 이를 동국발선의 계기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축전을 살펴보았다.

◇13일

축제 첫행사로는 재학생 3백여명이 참가한 「통일마라톤」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교교 「東國23回」에 대한 풍평회가 중강당에서 열렸는데 작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점진감을 초과하면서 진지하게 진행, 교지를 통한 학생들의 학생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클래식기념회에서 주최한 초청연주회와 전야제, 가요경연대회 및 축불행진은 행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14일

돌출날인 14일 점오에는 모의총장선거가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경아목의 길을 걷고 있

는 모의총장선거가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경아목의 길을 걷고 있

내 꿈을 키운다

韓國에 水上레저時代를 연다



大學에 유학중 先進國에서의水上文化에 매혹 귀국후 한국에서의水上레저文化를 계획하였으나 상황여건이 전무한 상태여서 주춤하면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오랜 구상 중이던 작품이 작수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상레저는 식도락기의 베터라고 할까요. 강변에서 또는 나룻배타고 강변 또는 江上에서 낚시나 배우탕을 즐기는 것이 거의 전부이지요. 물론 몇몇 군데 보트도 타고 수상스키도 즐겼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특정인들의 특수한 놀이로 간주되어야 할 것 입니다』라고 밝히며『한국에서의 수상레저한계가 그것이었지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상스키팀을 7월초면 한 동문의 집��으로 볼수있게 되었다.』

崔禎植 (동문),
母校를 출입하고 美 피거선



▲ 특정인의 특수한 놀이로만 알려져왔던 수상스키가 용설레저타운의 개장으로 대중화시대로 접어들었다.

『본격적인水上레저文化 창달 할터』

母校에 수상스키부 설립, 지원 다짐

업가적 엉리구수보너는 자신의 평소 소신으로 많은 사업가들의 인활경쟁을 끌고 25억의 자금투자로 한강의 水上레저타운 건설에 밤을 닦은 것이다.

성동구 관악동 올림픽대교위 편 22만평의 넓단다 대지위에는 7월초에 그위용이 나타나게되는 한국수상레저의 요람 龍星레저타운이 그것.

단순한 보트들이 수상스키놀 이터로 장사나 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龍星 관계자는 일컬어 용설레저타운이 전시적 말잔치의 산물이 아님은 그 시설용량에서 쉽게 볼수있다.

22만평의 대지위에는 국민체 위향상목적으로 각종체육공원을 마련했을 뿐더러 강상에는 5백여평의 국내 최대 최초의 바자선을 빙수하는 등 20여개의 모터보트 및 제트스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유람용 보트를 구비하는 등 1백여명이 같은 시간에 수상스키를 즐길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모터보트 제트스키 유람보트 등의 시설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욱水上文化를 발전시킬수 있는 시설은 바지선의 시설이지요』라고 바지선의 시설을 죽어시하는 龍星 관계자는『수상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수상에서의 관계인구가 많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끼를 즐기는 인구보다는 인구또한 즐기기 위해 최고의 시설을 완비한 바지선을 띠운 것이죠 1천여명의 수용

『母校와 本會발전의 뜨거운 열기』

열기로 가득찬 定總

○...축축히 내리는 봄비 속에서 지난 4월 25일 母校 東國館에서 거행된 제16차 本會定期總會는 잡식 동문들의 뜨거운 열기로 한순간 한순간이 母校와 本會發展의 한마당이었다.

안재란(54·국문) 동녀회 회장을 기존 회장단에 추가하는 등 각분야의 부회장단을 鄭 회장이 개별 소개할 때에는 회장단에 거는 동문들의 우렁찬 박수로 장내가 물리기도 했다.

특히 이날의 절정은 각지부에 대한 회기전달식이었는데 전달받은 15개 지부대 표가 일제히 훈장을 때는 東國의 한사람이면 누구나 가슴이 뜀을 했다는 것이 참석한 동문들의 家衆였다.

힘찬 발걸을 81步

○...民族私學의 긍지로 내딛은 코끼리의 힘찬 발걸음도 어언 81步一東國의 開校 81周年을 축하합니다.



동동국대동동회회동운동부

여기시다.

7만의 東國人 여러분 이제 야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 봅 때입니다.

『東國이 나에게 무었을 해 줄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東國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會費, 現住所등 협조바랍니다.』

會費...감사합니다

○...한동안 주소가 바뀐 때문에 會報를 받아보지 못해 새주소도 알리고 새로 이전한 동창회 사무국도 둘러볼겸 본회를 찾아온朴모동문. 그동안 會費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회보 구독료가 얼마나고 물어와 사무국 직원들을 당황케 하였는데...

『會報구독료는 받지 않고 있다가 국구 사양하여도『년회비 1만원 받아야 會報발송비도 모자랄텐데.』하며 그

려면 직원들 청진이라도 들리며 결국 밀린 회비와 함께 금일봉을 내놓고 돌아갔다.

本동동동사 박동문께 약속 드리니『本동동회에서 내주신 회비는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고, 會館建立 기금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등 東國의 발전을 위해 쓰일것입니다요.』

까요』라며 구체적인 혜택방법은 아직은 비밀이라고 한다.

현제 회원들을 모집중에 있는 龍星레저타운은 앞으로 몇년간은 투자의 기간으로 본다고.

『기업가가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면 모두들 웃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윤을 생각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수상레저 현실이지요. 앞으로 건전한 헤로서 수상레저가 정착이 되면...』라고 이 사업에 기업가로 뛰어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빙그리를 흔드는 헤.

우리나라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육성에 대한 崔동문의 집념은 기업가의 이윤으로 대한 社會의 원활이라는 점에서 大기업들의 부조리를 지상에서 보고고 있는 유익한 신선한 충격임을 인터뷰 도중에 쉽게 느낄수 있었다.

현재 회원을 모집중에 있는 龍星레저타운은 24시간 모임이에게 공개, 수상운동을 비롯하여 한강의 명소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도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관광 효과도 노리는 내·외국인을 위한 한강의 명소이기도 하다. 문의전화는 453-6071~3이다.

회원모집



되살아난 우리의 漢江에

한쪽의 그림처럼 떠있는 환상의 섬 - 드래곤페레스

이제 되살아난 우리의 한강에 새롭고 국제적인 레저문화가 탄생합니다.

한강을 따라 시원스럽게 펼쳐진 수상공원 위에 한쪽의 그림처럼 떠있는 환상의 섬, 드래곤페레스.

하얀 물결을 가르며 물 위를 자유자재로 캐슬 짚주는 모터보트 - 세계적인 봄을 일으키고 있는 수상오토바이 제트스키 - 젊음으로 힘내는 도전해 보고 싶은 수상스포츠의 세계 - 리버사이드 드래곤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드릴과 남안이 넘치는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식회사 용성레저

本社 : 서울市 鍾路区 寬敞洞 192-18 ☎ 734-0051~9

支社 : 서울市 城東区 廣壯洞 山 21 ☎ 453-6071~3

첨단 미래산업에의 도전—磁氣 및 光메모리 분야



천년 숨소리가 담긴 역사의 그릇

경 험은 역사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한 토양입니다. 담아두지 않으면 새로 찾아야 하고 기록해 두지 않으면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의미로 빛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천년 숨소리가 담긴 역사의 그릇으로 지금 우리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담되 그릇은 더욱 작게, 고도의 정보를 담되 그릇은 더욱 간편하게. 이것이 바로 선경이 추구하는 첨단의 磁氣 및 光메모리 분야의 기술의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경은 보다 생생한 소리, 보다 선명한 영상, 보다 많은 정보를 담아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오늘을 미래에 전하려는 의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상표로 성장한 SKC 비디오테이프 및 플로피디스크



▲ 바늘없이 빛으로 소리를 재생하는 SKC 콤팩트디스크(CD)



▲ 최첨단 음향기록매체인 SKC 디지털 오디오테이프(DAT)

SK 鮮京그룹

小說英雄門

*金一江
옮김

갈수록 더 큰英雄을 세우는 金庸
小說의 최고봉 「소설영웅문」!



金庸
大河歷史小說
長篇小說

제1부·몽고의별 전6권完刊!
제2부·영웅의별 전6권完刊!
小說英雄門·제3부 中原의별 出刊!

제1부·몽고의별 술한 고비 역경 속에서 큰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그의 연인 황용! 무수한 영웅호걸들이 출몰하는 어지러운 대륙의 역사 속에서도 신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진짜 사이이들을 위한 大河歷史 長篇小說!

제2부·영웅의별 모순에 찬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지준한 사랑으로 연인 양파를 英雄門으로 이끄는 소옹니!
현대여성들의 예정관에 충격을 던진 나무나 이를 담고 영원한 사랑의 신화!

제3부·中原의별 우환이 많은 人間世 속에서 大仁大勇의 心氣를 키워가는 영웅 장무기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美人조민!
사랑의 신성불가침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허무를 극복한 허무의 경지에 이르는 莊子의 소설!



*제1부·전6권/제2부·전6권/제3부·전6권/각 330면 내외 *각권 값 3,000원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제1부·제2부·제3부 중 어느 것을 택해서 읽으셔도 재미있습니다.

歴史學의 교과서, 政治學의 보감, 企業經營의 지침서, 鄭飛石作 小說孫子兵法!

小說孫子兵法

•전4권/각30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습니다.

小說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說楚漢誌!

小說楚漢誌

•전5권/각30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습니다.

인류사상 最大的 인생향망극, 鄭飛石作 小說三國志!

小說三國志

•전6권/각 33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서점에 있습니다.